

## 광주일보 제7기 독자위원회 4차회의

일시: 2013년 8월 19일 장소: 광주일보 회의실

광주일보 제7기 독자위원회가 지난 19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하·김준원·노미향·박홍근·이묘숙·임효택·조미옥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7명이 참석했다. 독자위원들은 지난 두 달간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작논란 등으로 국가적·지역적 논란이 뜨거운 사건에 빌빠르게 보도한 부분을 격려하며 광주일보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 지역 인재 유출 심각... 각계각층 머리맞대 육성방안 제시해달라



이묘숙 (아크갤러리 관장)



각 기관 홍보기사 비중 줄이고  
숨은 봉사자들 발굴 힘써달라

조미옥 (나주 영산포여중 교사)



성범죄·탈주범 구체적 묘사  
청소년 모방범죄 초래할 수도

노미향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



'무등산 나무전쟁' 기사 인상적  
독자들에 유익한 정보였다

김준원 (광주은행 사회공헌국 본부장)



네이션 호남비하 발언 유행  
올바른 시민정신 갖게 선도를

▲이묘숙=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으로 독자들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무겁다. 이런 상황에 행복한 소식을 먼저 찾게 되는데 지난 8월6일 교육면 '학교에 떠지는 행복바이러스' 기사는 기자가 현장을 밟고 뛰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기분 좋은 기사였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싶다.

'피플 앤 라이프' 기사는 우리 지역 독자들의 숨겨진 소소한 이야기를 전하는 곳인데 일부 기관들의 홍보 기사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 기관이나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한 '뻔한 기사' 비중을 줄이고 조용하게 봉사하고 있는 주인공들을 좀 더 활발하게 발굴해주면 좋겠다.

금연정책에 대해 지면에 따라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 훈란스럽다. 7월10일자 경제면에서는 금연법 시행으로 흡연이 금지되는 상가를 매출이 급감했다며 일부 업소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반면 7월31일 사회면에서는 대형음식점에서 금연정책을 무시하며 꼼수 흡연을 하고 있는 흡연자를 고발했다. 독자 입장에서 금연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다른 지면에서는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나의 정책에 대해 광주일보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한다.

▲조미옥=방학을 맞아 자녀들과 산과 들로 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유령한 관광지를 찾게 된다. 8월1일자 여행면에서는 전북 고창·강원도 인제·경남 남해까지 다양한 지역의 불거리, 먹거리, 체험코스를 소개해서 유익했다. 이와 함께 7월19일 문화면에는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행사를 알기 쉽게 보여줬다. 시원한 사진과 함께 휴가철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다. 앞으로도 숨겨진 지역의 명소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

8월5일 사회면 '지역 다문화가정 5000명 넘었다' 기사는 들어나는 다문화 가정을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서술 경기의 이어 세 번째로 많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다문화 학생 증가는 연연한 현실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다문화 학생이 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학생과 학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기획시리즈를 만들어 광주일보가 지역의 이슈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와 탈주범 소식을 전할 때는 너무 구체적으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사건에 대해 대중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정보제공은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사건전달에 있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

▲노미향=7월30일 '무등산 나무전쟁'이란 기사가 인상적이었다. 무등산 터줏대감인 소나무와 새로운 세력인 참나무가 생존을 위해 소리없이 경쟁하고 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도 독자들이 놓지기 쉬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6월27일 사회면에 '광주 남구 65세 이상 16% 치매'라는 기사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막연히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치매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됐다. 남녀노소 누구나 치매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이 있는 만큼 어떤 생활습관이 치매를 높이고 또, 경제력, 결혼 유무 등의 요소가 영

향을 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7월31일 광주 동구의 한 복지시설에서 지원금을 빼돌린 사실이 기사화됐다.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설에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 복지시설에서 운영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례도 있지만 자칫 이런 소식으로 모든 기관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까 우려된다. 부도덕한 시설에 대한 고발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점을 없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김준원=한 일간지에서 운전자들의 잘못된 습관에 관한 기획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신문에서 연일 나쁜 운전습관의 폐해를 보여주며 안전운전을 강조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일보가 이러한 캠페인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최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문서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일부 네이션들의 호남비하 발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는 호남비하 현상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정부와 광주 시민들이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나주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있다. 이곳이 광주·전남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기사를 다뤄주면 좋겠다.

▲박홍근=연일 문화전당 사업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계속되는 기사에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광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문화 수도의 내일이 걸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점차 잊혀지고 있는 원전 관련 기획기사가 적절해 보였다. 다른 이슈들로 인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방사능 누출은 계속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묘연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향후에도 광주·전남의 지역적인 문제와 국가적인 문제를 균형적으로 다뤄주길 바란다.

신문면집에 있어 광고의 비중이 커서 기사에 집중하는데 방해될 때가 있다. 또한 기사와 너무 동떨어진 광고가 함께 배치된 경우 독자들이 이질감을 느끼고 글을 읽는데 불편하다. 광고가 꼭 필요하겠지만 기사와 함께 균형을 잡아서 게재됐으면 좋겠다.

▲임효택=7월13일 러시아 카잔에서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여자 펜싱 경기가 열렸다. 이날 금메달을 딴 전남도청 이우리 선수가 환호하는 모습이 지난 7월15일 스포츠면에 실렸다. 우리 지역 선수의 기쁜 소식이자 광주가 다음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금메달 소식은 시기적절했다. 특히 야구와 축구 등 광주지역 프로스포츠가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소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면 좋겠다.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함께 광주에서 유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소식은 광주일보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준비과정과 효과 등을 소개했다. 최근 문서조작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대회를 통해 광주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회가 될 것이다. 광주일보가 문서조작이라는 일부분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적인 행사인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박홍근 (포유 건축사 사무소 대표)



광주 역점 추진 '문화 전당'

계속적인 감시 보도해 달라

김윤하 (포유 건축사 사무소 대표)



광주U대회·세계수영선수권

준비과정·효과 소개 적절

김윤하 (전남대병원 홍보실장)



박대통령 지방공약 분석 기사

정부 생색내기에 일침

▲김윤하=7월8일자 '박근혜대통령 지방공약, 임기 내 실현 미지수' 기사는 기재부의 공약이행계획안을 분석해 실현 가능성이 무작위라는 결론으로 정부 생색내기에 대한 일침을 놓는 기사였다. 또한 8월7일자 '문화재청, 광주호 둑 높이기 강력제동' 기사는 우리 지역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문화재청과 농어촌공사의 입장을 자세하게 비교했다. 여기에 자세한 해설기사까지 덧붙여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사였다.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해외로 향하고 있다. 지역에서 공부해 원하는 직장과 환경을 찾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광주시는 물론 지역대학, 지역민이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당장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때 지역출신 인재들이 소외되고 타지역 출신 위주로 선발될 경우 예기치 못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주일보가 시민과 함께 고민하며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정리=양세열기자 hot@·사진=김진수기자 jeans@

## 금당공인중개사

매매, 교환, 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 감정가 이하물건

총장로5가 버스도로접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매도 9억6천

복구 유통 상업지역 대지411㎡(124) 건평327㎡(99) 공시지가 2억8200 매도 3억

합평동 영업 절되는 어관 포함해 접해있는 주거지역 504평, 평에는 생활주택 등 적합 대출4억 매도10억5천

## 매도·임대

매도, 신창동 진총고 부근 대지302평 건물715평, 회사사옥, 병원, 오방사, 종교시설, 종교시설 등 적합 은행7억 전세4억3천 월 1650만원선 35억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5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12억 가능 은행3억 매도7억8천

매도, 목포디디털 생활주택 54평은 1억9300만원 대형도 가능함

매도, 쌍촌동 호텔급 시설의 생활주택 24㎡(8평형) 10채 대출은 38평은 1억9300만원 54평은 1억8500만원 대형도 가능함

매도, 쌍촌동 호텔급 시설의 생활주택 24㎡(8평형) 10채 대출은 38평은 1억9300만원 54평은 1억8500만원 대형도 가능함

매도, 신창동 보건대학부근 대로변 주택서시관 1층 167㎡(50) 보증금 5천 월2백선 조정가능 주차장 넓음

임대, 쌍촌동 [구]장군관사에 신축증인 호텔급시설의 생활주택37㎡(11평) 모던스타일비어워드에 있음

보증금5000에 월40만원, 9월1일경 첫임주, 운천역에서 7분 거리

임대, 쌍촌동 기도건설의 주택전시관 70평 다양한 용도 사용가능, 40평과 30평으로 분할 임대도 가능, 보증금5000에 월200만원 조정 가능함.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기도건설 전속중개사무소입니다.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상가 주택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상가 주택

>동구 충정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김정가43억 최저가24억

>광산구 운남동 2층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440㎡ 김정가15억 최저가9억5천만

>광산구 신기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김정가6억9천만 최저가14억8천만

## 단독 주택

>서구 화정동 2층주거2층주택 대지159㎡ 건평184㎡ 김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김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광산구 송정동 2층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김정가1억3천만 최저가19천만

## 공장 및 창고

>광산구 지죽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1379㎡ 김정가15억 최저가8억3천만

>광산구 유풍동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305㎡ 건물2711㎡ 김정가30억 최저가21억

## 토지 매매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무안군 해제면 대신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 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10층)

보25억, 월 6500만원 매13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 (5층)

보2억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천동 (5층)

보2억, 월1040만 매19억원